

부산 항만공사 창립행사 참석 중 말씀

항만 공사화가 분권의 시작입니다

항만공사의 출범

부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계 지도자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산 항만공사 출범하기까지 부산시 관계자, 항만 관계자 물론이고 학계, 시민사회 여러분들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성원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공들이고 노력한 결과가 여러분 앞에 결실을 맺어서 항만공사 시대의 새로운 닳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항만 지방 공사화를 주장하고 하다가 그 뒤에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골격을 짜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 된 시점에 항만공사가 출범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저도 한 몫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슴 뿌듯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고되었듯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항이 이제 동북아 중심 항, 그리고 세계적 항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부산항은 저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을 공사화 하는 것 자체로서 항만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분권 계기를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중앙정부 통제

하에 행정조직보다 효율성을 높이라는 기회를 준 것이지 그 자체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책임도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 결과로서 법도 확정되고 조직도 제대로 편성되어 출범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계속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영자임명 과정에서도 서로 자기 쪽에서 임명하려고 다투지 않고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추 사장을 일치해서 추천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범 때부터 밝은 전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성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 항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2006년 되면 일부분 개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부산항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상해 항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데 부산이 그쪽에 뺏기지 않을까 조금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 요소가 있는데 지리적 역사적으로 부산항이 우월합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일시적으로 상해 항이 앞서더라도 알차게 길게 발전하는 것은 부산항이라고 자신합니다. 지난번 매미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때, 항만 관계자와 부산 시민이 일치단결해서 신속히 복구하고 운영의 대안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산항을 운영하는 분들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항만운영에서 치명적인 것이 노조의 파업입니다. 올 봄의 파업도 모두 합심해서 무사히 넘겼습니다. 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없었던 것보다는 못하지만 이 과정을 넘기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항만노조가 무쟁의 선언으로 공사 출범을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노조를 이끌어가는 처지에서 조합원 설득해서 이 선언을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단은 부산항 미래 밝게 하는 쾌거입니다. 여러 가지 살펴 볼 때 이 자리 모이신 분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주도형 혁신으로

부산항은 상해 항과 관계없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살림을 내주면서 지방 자율권이 존중되는 공사로 구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도 걱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자율권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자율권을 높이는 것으로 해 가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 우수하고 부산 경남 시민이 우수합니다. 이뿐 아니라 부산 국제영화제나 모터쇼, 경남 에프 원 등등이 항만 중심으로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발전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은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화시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사가 아니라도 지역발전은 지역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발전 계획 세우고 동력 만들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 이끌어내는 지방 주도형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